

## 에이즈의 치료 및 예방

### 1. 에이즈의 진단 및 검사

HIV 감염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항체검사 즉 효소면역검사가 있다. 항체 검사란 HIV에 대하여 인체의 면역기구가 만들어낸 항체를 혈액에서 검출함으로써, HIV의 감염 여부를 알아내는 간접적인 검사이다.

항체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는 HIV에 감염되지 않은 경우와 감염은 되었지만 항체가 양성화 되기 이전에 검사한 경우 등이 포함되며, 항체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HIV에 감염된 것을 의미하는데, 자가면역질환자나 빈번히 수혈을 받는 사람, 임신부 등에서는 HIV에 감염되지 않았어도 양성으로 나타나는 "위양성"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일단 양성반응을 나타낸 경우에는 확진을 위해서 서울 불광동에 있는 국립보건원으로 재검사를 보내 '웨스턴 블롯(Western blot) 검사'를 하고, 여기서 양성으로 나타나면 감염자로 확진된다.

효소면역 항체검사는 각 시·도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검역소 및 각급 병·의원 등 임상병리검사실이 갖추어져 있는 웬만한 의료기관에서는 다 가

능하며,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된 날로부터 6~12주가 지난 뒤에 검사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감염 후 적어도 6주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며 대부분 3개월까지는 항체가 형성되어 검사에 양성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이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항체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극히 드문 예에서는 수년이 지난 후에 항체양성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3개월 후에 검사를 받아보면 정확하다 하겠다.

또한 헌혈시 에이즈 항체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지만, 감염여부를 알기 위해 헌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본인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검사를 받고 싶을 때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받을 수도 있으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개인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다.

검사결과가 통보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관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검사비용은 병·의원은 유료이고 기타기관은 무료이다. 이러한 검사결과는 감염 위험에 노출된 후의 시간, 증상 등

의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경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등 한 번의 검사만으로 감염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충분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으며 검사기관에 관계없이 검사의 신뢰성은 높다고 하겠다.

정부에서는 특수업체부와 유흥업소 종사자, 그리고 윤락녀와 같은 성병 검진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에이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외항선원이 귀국 후 의무적으로 에이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였

으나, 지금은 자발적으로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 3개월 이상 연체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에이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에이즈검사를 권장하고 있다.

## 2 에이즈의 치료

에이즈치료제는 1987년 처음으로 자이도부딘(Zidovudine) 다시 말하면 에이지티(AZT)라는 약이 미국에서 허가되어 에이즈 환자에게 쓰여지고 있으며, 1991년에는 다이다노신(Didanosine) 또는 디다이(DDI)라는 약이 두번째로 개발되었고, 1992년에는 잘싸타빈(Zalcitabine) 또는 디디씨(DDC)가 세번째로 개발되어



▲ 우리의 동정심, 지지, 에이즈 없는 세상에 대한 희망의 상징으로 거꾸로 하면 승리(V-Victor)를 뜻하는 붉은 리본캠페인.

사용되고 있다.

이들 약제들은 에이즈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약들로서 에이즈감염으로 인한 증상을 줄이거나 완화시켜주고, 에이즈로의 이행을 지연시킴으로써 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최근에 HIV감염의 치료분야에는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어렵지만 라미부딘(lamivudine), 스타부딘(stavudine) 등의 뉴크리오사이드제제, 네비라핀(nevirapine), 델라버딘(delavirdine) 등이 있고, 또한 여러 약제의 병용요법이 단독요법보다 생존기간을 연장시키고 AIDS로의 이행을 줄인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졌다.

특히 최근에 개발되어 환자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단백분해효소억제제

(protease inhibitor)의 치료효과는 기존의 어느 치료제보다도 뚜렷해 많은 의학자들을 기대케 하고 있다. 또한 금년 7월에 열린 제11차 세계 AIDS학회에서는 HIV치료를 위한 새롭고 합리적인 원칙이 제시되어 일선에서 치료를 맡고 있는 임상 의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매우 강력하고 희망적인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나아가서 AIDS 완치가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우선은 AIDS를 결핵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병으로 변화시킬 수 있리라 기대하고 있다.

### 3. 에이즈 감염자 관리

보건당국에서는 감염자로 밝혀지면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역학조사를 위한 면담을 실시하고, 그 후에는 관찰보건을 통해서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절대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감염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치료기관을 소개해 주고 있다. 이때 정부에서는 에이즈 치료제인 에이지티(AZT)를 지정치료기관을 통해서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있으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비도 보조해 주고 있다.

HIV 감염자는 완치가 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거나 자포자기에 빠져있지 말고 전문의와 상의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본인은 물론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

하다 하겠다.

또한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격리와 같은 강제조치는 전혀 없다. 에이즈는 감염자에 대한 교육 및 계몽으로 충분히 전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격리와 같은 조치를 결코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염자에 의한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감염자로 확인된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거하여 감염자는 보건기관의 역학조사에 응해야 하고, 취업이 제한된 업소에는 취업할 수 없으며, 타인에 대한 전파매개행위를 할 경우에는 동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 4. 에이즈의 예방

안전한 성관계(Safe sex)가 AIDS 예방에 중요하므로 예방책의 하나로 여러 사람과의 문란한 성적 관계를 삼가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현 시점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예방법은 역시 콘돔사용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도부터 국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수혈 및 혈액제제에 대해서 에이즈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으로 판정된 혈액 및 혈액제제만을 사용하고 있다.

만약 양성반응을 보이기 전에 감염자가 헌혈을 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않게 불행한 수혈사고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수혈사고는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서 앞으로 좀 더 예민한

에이즈 검사법이 개발된다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급한 수술이 아니라면 자신의 혈액을 미리 저장해서 사용하는 자가수혈이 바람직하며,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지의 혈액을 수혈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또한 임신부가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 신생아가 감염될 확률은 15~25%로서, 일반적으로 4명 중에 한 명 꼴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가능한한 임신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으나, 만약 감염사실을 모르고 임신하였을 때에는 임신중절도 가능하며, 출산을 원한다면 예방적으로 에이즈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다. 이러한 예방조치를 함으로써 신생아가 감염될 확률을 1/3로 줄였다는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있다.

에이즈는 우리가 그 실체를 알고나면 그렇게 공포스러운 질병도 아니고, 정상적인 생활만 유지한다면 가장 예방이 쉬운 질병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에이즈의 실체를 대중이 알도록 하는 일이 쉽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이즈는 동성애자나 윤락가를 출입하는 타락한 사람들만이 걸리는 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은 사창가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동성애자는 더욱 아니므로 그런 사람들만이 걸리는 병에는 전혀 관계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4. 협회의 활동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는 에이즈 예방 및 퇴치와 감염자 및 그 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93년 설립된 이래 범 국민적 홍보계몽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일선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들에 대한 교육, 상담요원과 자원봉사자 들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왔고, 비디오를 제작, 전국에 배포하여 활용토록했다. 최근에는 "에이즈 전문치료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에이즈 관리상의 문제점과 진단기준, 치료지침 보완 및 개발보급 등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했다.

이외에 격월간으로 "에이즈(AIDS)"라는 잡지를 발행하여 전국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PC통신(나우누리 GO AIDS)과 전화자동음성정보(ARS)서비스(700-6191), 사무국의 전화 등을 통한 에이즈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여러 유관단체와 함께 실시하여 온 세계 에이즈의 날 행사는 에이즈 예방 및 퇴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되 금년엔 시각적인 면을 좀더 강조하고자 감염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에이즈 예방 및 퇴치 활동은 정부와 민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대한에이즈예방협회제공—